



첫 카르멘, 80번째 돈 호세 그리고 청년 성악가

제주아트센터 두번째 오페라
제주 소프라노 강혜명 연출로
프랑스 등 참여 '카르멘' 제작
주·조역마다 흥미로운 스토리
“지역적 한계 넘는 가능성 기대”

‘투우사의 노래’로 시작해 카르멘과 돈 호세의 이중창으로 끝이 났다. 약 150분 짜리 작품을 20분에 담은 짧은 콘서트였지만 비극적 사랑의 여운이 전해졌다.

제주아트센터가 지난해 ‘라 트라비아타’에 이어 두 번째로 만드는 오페라 ‘카르멘’. 19세기 스페인을 배경으로 집시 여인과 군인의 사랑을 그린 4막 오페라다. 지난 18일 제주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작 발표회는 주·조역들이 유망 아리아와 이중창을 부르며 시작을 알렸다.

제주출신 소프라노 강혜명이 연출가로 나서는 이 공연은 한국(제주), ‘카르멘’ 작곡가 비제의 나라 프랑스, 중국 등 다국적 음악인들이 모여 제작됐다. 최근 제주시가 내놓은 창



18일 제주아트센터에서 열린 오페라 ‘카르멘’ 제작 발표회에서 연출과 출연진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정아, 시향, 안소피 뱃상, 필립 메스트레, 강혜명, 장 노엘, 안무 최재원, 고승보. 전선희기자

작무지컬의 4분의 1 정도인 ‘저예산’이지만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강혜명, 제주아트센터 공연기획자 김태관, 총감독을 맡은 제주그랜드오페라 단장 김정희 제주대 교수의 인적 네트워크와 열정을 바탕으로 150여 명이 출연하는 ‘제주산 오페라’다.

주요 배역마다 ‘스토리’를 품었다. 서른 살의 안소피 뱃상은 젊은 성악가에게 좀처럼 기회가 가지 않는 카르멘역을 처음 따내며 첫 아시아 공연길에 올랐다. 마르몽드극제성악콩쿠르 심사

위원이었던 강혜명이 그곳에서 주역으로 점찍었고 뱃상은 “새로운 카르멘을 보여주겠다”며 주저없이 수락했다. 장 노엘은 제주에서 80번째로 돈 호세를 소화한다. 79번 돈 호세를 연기해드

를 새롭게 다가온다는 그다. 에스카미요 역의 중국 상하이국립음악원 교수 시향은 강혜명처럼 유럽에서 아시아 성악가로 활약했다. 아시아 청년 성악가들에게 언제든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은 시향은 이 공연을 계기로 제주, 상하이, 파

리가 같은 오페라를 올리고 문화 교류할 수 있는 다리를 놓기 위해 제주에 왔다고 강조했다.

제주가 고향인 소프라노 강정아, 성악을 전공하는 제주대 음악학부 2학년 고승보도 있다. 미카엘라 역 강정아는 “멋진 프로젝트에 참여해 영광”이라며 제주 성악가들이 지역적 한계를 넘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작년 제주아트센터 2층 객석에서 ‘라 트라비아타’를 관람했던 고승보는 이번엔 모랄레스로 무대에 오르는 ‘반전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다. 코리아솔로이츠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제주는 물론 아시아 무대에서 최초 지휘봉을 잡는 프랑스 라벨 마르몽드시립음악원의 필립 메스트레 학장은 고승보 등 제주 성악가들의 연습 과정을 보며 “그들의 노력이 굉장히 감동스러웠다”고 말했다.

공연은 9월 27일 오후 7시30분, 28일 오후 4시, 둘째날에는 김민지(카르멘) 박웅(돈 호세) 김현(에스카미요) 등을 볼 수 있다. R석 4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1층 입장권은 예매 첫날 대부분 났다. 문의 064)728-1509. 전선희기자

‘에콜 드 제주’에서 펼쳐지는 세 개의 서정

기당미술관 3인 초대 기획
이옥문 박길주 문성운 작가
정직하고 장엄한 풍경서
낭만과 어둠의 표정까지

‘제주’라는 정체성을 서정적인 시선에 담은 3명의 작가가 서귀포시 기당미술관에 모인다. 이달 20일 막이 오르는 ‘에콜 드 제주-세 개의 서정’전이다. ‘에콜 드 제주’는 과거 전후의 파

리에 세계 각지의 화가들이 모여들어 활동했던 에콜 드 파리(Ecole de Paris, 파리파)가 연상되는 이즈음 제주 미술계의 상황에 빗대 붙여졌다. 기존에 활동해온 제주 중견작가들과 신진작가들, 외부에서 유입되는 작가들이 뒤섞이며 ‘제주’라는 지역을 다시금 새기게 만들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이번 전시에는 이옥문·박길주·문성운 작가가 초대됐다. 50년간 제주에 살았던 토박이 작가에서 제주를 새로



이옥문의 ‘중산간의 가을’.

운 창작 공간으로 백한 작가들까지 서로 다른 공간과 시간 속에서 체험해온

제주의 서정성을 어떻게 해석하고 구현해내는지 살펴볼 수 있다.

제주에서 출근 작업해온 이옥문 작가는 정직하고 장엄하게 완성된 서정으로 제주의 풍경을 담는다. 곁흔을 계기로 제주살이를 시작해 어느덧 15년이 된 박길주 작가는 수많은 붓터치로 만들어내는 낭만적 서정을 보여준다.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에 입주했던 문성운 작가는 풍경의 어두운 이면을 집요하게 관찰해 무채색으로 표현한다.

전시는 11월 14일까지. 개막 행사는 첫날 오후 4시에 열린다. 문의 064)760-6561. 전선희기자

가을밤 원도심 문화재 깨워 함께 노닐다

제주목관아 일대 문화재 야행
목사 잔치날을 미션 게임으로

제주도심 문화재에서 가을밤의 색다른 정취를 나눌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이달 20일부터 22일까지 이어지

는 제주문화재야행이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잠자고 있는 역사문화유산의 가치를 살린 야간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이 행사는 제주목관아를 중심으로 제주시 원도심 일대에서 진행된다. 제주목사의 잔치날(생일)을 가정한 도심 미션 게

임(RPG)을 주제로 이야기가 있는 젊고 새로운 야행으로 구성했다.

이 기간에는 ‘제주성과 목관아 이야기’(박경훈 작가), ‘조선왕조실록 속 제주이야기’(박시백 작가), ‘기억의 저장소 제주원도심’(김동현 평론가)을 주제로 인문학 콘서트가 마련된다. 가야금양상불 사려니, LED 댄스·포퍼먼스 그룹 아라덴스컴퍼니, 제주여성유도 흥호밴드, 창작국악밴

드 컴퍼니(COMPANY)랑, 감성보컬뮤지션 샘김, 퓨전 국악밴드 아이오나, 플라멩코와 국악의 만남 소리깨페, 제주시카밴드 사우스카니발의 공연도 예정되어 있다.

예술장터(플리마켓), 예술체험, 전통놀이체험 부스도 문화재야행 프로그램으로 준비됐다. 사진전갤러리에서는 제주무형문화재 사진전이 열린다. 문의 064)725-0905. 전선희기자

詩(시)로 읽는 4·3 (26)

현무암은 왜 우는가-4·3 추념일 68주년 아침에
서해성

제주에 널린 현무암에 어쩌서 구멍이 많은 줄 아는가.
한날한시에 모여서 온 여인들 눈물 자국에 파인 까닭이다.
제주에 널린 유채꽃밭이 어쩌서 한날한시에 노랗게 피어나는 줄 아는가.
잊어도 아주 잊지는 말아다오
돌 틈 사이에서 부르는 까닭이다.
제주 중산간 새별오름 지나 이달
봉이 어쩌서 촛대봉을 품고 사는
지 아는가.
한날한시에 촛불 한 자루 올리

달라
바위산 모아 비손하는 까닭이다.
송악산 밑 알뜨르비행장 백조일손지모가 어쩌서 백조일손지모인지 아는가.
한날한시에 죽은 아방 어명 한날한시에 돌아오고도 싶은 까닭이다.
제주에 널린 현무암이 어쩌서 구멍 송송 우는 줄 아는가.
한날한시에 쓰러진 바람이 죽은
자들 이름을 여적지 숨어 부르는
까닭이다.

백조일손지모(百祖-孫之墓)’는 조상은 백 명 자손은 하나인 무덤이다. 모슬포경찰서 관할 양곡 창고에는 예비검속으로 1950년 7월 초부터 잡혀온 347명의 무고한 양민들이 수감되어 있었다. 1950년 8월 20일(음 7월 7일) 밤중에 이들 중 250명 가량을 창고에서 끌어내어 첫알오름 기슭에서 새벽 2시와 5시경에 61명, 149명으로 나누어 총살하였다. 백조일손희생자란 이 때 희생된 210명~250명 중 1956년에 발굴되어 현 묘역에 안장된 132명을 말한다. 시신의 신원을 구별할 수 없어 132개의 칠성판에 큰 뼈를 대충 수습하여 현재의 묘지에 이장했다. 1959년 5월 8일 묘역에 위령비를 건립하였으나 5·16 군사쿠데타 이후 4·3사건은 북한 의 사주에 의한 폭동으로 규정하고 부수어버렸다. 전두환 정권 때 교과서는 4·3사건을 폭동사건으로 지

칭하며 공산 무장폭도가 국정을 위협하고 질서를 무너뜨린 남한교란 작전 중 하나라고 서술했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반공법과 국가보안법과 같은 연좌제로 인해 감시받고 사회 생활에 제약을 받았다.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시민사회에서 4·3진상규명을 요구했으며 4·3특별법이 제정되고 세상에 제대로 빛을 보게 되었다. 1993년 8월 24일 일손희생자란 이 때 희생된 210명~250명 중 1956년에 발굴되어 현 묘역에 안장된 132명을 말한다. 시신의 신원을 구별할 수 없어 132개의 칠성판에 큰 뼈를 대충 수습하여 현재의 묘지에 이장했다. 1959년 5월 8일 묘역에 위령비를 건립하였으나 5·16 군사쿠데타 이후 4·3사건은 북한 의 사주에 의한 폭동으로 규정하고 부수어버렸다. 전두환 정권 때 교과서는 4·3사건을 폭동사건으로 지

서귀포성당 120주년 준비위 산남 가톨릭 역사 조명 포럼

천주교 제주교구 서귀포성당 120주년 준비위원회는 이달 21일 오후 2시 서귀포성당에서 학술포럼을 연다. 제주에는 1899년 12월 제주성당(지금의 중앙성당)이 처음 설립됐고 1900년 6월에는 산남지역에 하능성당(현 서귀포성당)이 들어섰다. 이를 통해 제주시를 넘어 제주도 전 지역으로 천주교 신앙을 전파할 수 있었다. 이번 포럼은 2020년 서귀포성당 설립 120주년을 계기로 제주에 가톨릭

신앙을 전파하고 산남지역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온주밀감을 도입 소개한 에밀 타케 신부를 비롯 외국 선교사들의 활동을 조명하고 기념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이날 ‘제주 산남지역 복음화에 헌신한 초기 외방 선교사들의 활동’이란 주제 아래 두물머리복음화연구소 소장인 황종익 박사의 ‘통합생태의 관점에서 본 제주교구 초기 가톨릭 선교사들의 역할’, 천주교제주교구 부교구장인 문창우 주교의 ‘에밀 타케의 선교활동에 대한 영성적 고찰’에 대한 강연이 잇따른다. 문의 064)762-3444.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주농업인의 자랑

강길홍
 [친환경과수]

김성운
 [감 굴]

문호진
 [감 굴]

고성영
 [한 우]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한
제4회 농업마이스터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주농업마이스터대학

제주특별자치도 서기관 (생활환경과장)

김한영

현윤석

고승우

취임 및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재제주시성산읍오조리향우회

회장 강재홍 외 회원일동